

# 양의지, 타격 3관왕 보인다

(23일까지 타격 2위·홈런 2위·타점 1위)



NC 베테랑 포수 양의지는 '최강 안방마님'을 넘어 '강타자'의 면모까지 과시하고 있다. 팔꿈치가 좋지 않아 주로 지명타자로 나서는 그는 타율·홈런·타점 등 타격 3개 부문 타이틀에 도전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타율 선두 강백호와 2푼4리차 2위 후반기 타율 0.467·1홈런·6타점 페이스 ↑ 타격 타이틀 싸움이 도전

NC 다이노스 양의지(34)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겸비한 포수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최고의 포수'와 '4번타자'의 능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알고 있다면, '야구천재'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다.

'야구 잘한다'는 평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던 꾸준한 타(?)일까. 양의지의 활약은 늘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런 데 의외로 타격 주요 부문 타이틀을 획득했던 사례는 2019년 타격 부문(타율 0.354) 한 차례가 전부다. 지난 3년 연속(2018~2020년) 3할 타율과 20홈런, 4할 출루율을 기록한 데다 포수로서 역할에도 충실했으니 2018시즌이 끝나고 두산 베어스에서 NC로 이적하며 받은 프리에이전트(FA) 계약 총액(4년 125억 원)이 '오버페이'라던 목소리는 속 들어갔다. 이동욱 NC 감독이 2019년 신인 투수였던 김영규가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이자 "김영규는 행운아죠. 양의지를 만났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포수 양의지'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한 한 단면이다.

지금과 같은 활약이라면 양의지의 타이틀 획득 여부는 중요치 않다. 인사이드 워크와 투수를 편안하게 해주는 리더, 상황에 따른 패턴 변화 등 기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포수의 가치를 모두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회가 찾아왔다면, 그냥 넘기기 어렵다.

23일까지 81경기에서 타율 0.361(2위), 21홈런(공동 2위), 77타점(1위)을 기록 중인 양의지는 타격 3개 부문(타율·홈런·타점)에서 모두 타이틀을 노려볼 만하다. 팔꿈치가 좋지 않아 잠시 포수 마스크를 내려놓고도 지명타자로 꾸준히 나서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타선에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며 시즌을 끝낸다면 커리어 하이 경신도 가능하다.

타격 부문 선두 강백호(KT 위즈·0.385)와 격차는 0.024다. 전반기까진 0.348로 0.395를 기록한 강백호에게 5푼 가까이 밀렸으나, 후반기 들어 맹활약을 펼치며 격차를 크게 줄였다. 홈런 부문에서도 공동 1위 호세 피렐라(삼성 라이온즈), 최정(SSG 랜더스·이상 22홈런)에 1개 뒤져있다. 타점 부문에선 피렐라(74타점)에 3타점 앞선 선두다. 지금의 페이스라면 팀이 144경기를 모두 마쳤을 때 양의지는 36홈런, 132타점으로 시즌을 끝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0도쿄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상실감을 딛고 후반기 8경기 타율 0.467(30타수 14안타), 1홈런, 6타점의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는 점도 타이틀 도전을 기대케 하는 요소다. 양의지의 조용한 3관왕 도전, 그 결말이 궁금하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데뷔타석 초구 홈런'으로 주목받은 한화 김태연이 4년만에 다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퓨처스리그에서 1군 콜업된 이후 맹타를 휘두르다 잠시 슬럼프에 빠졌지만 일회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lh1147@donga.com

## '데뷔타석 초구 홈런' 김태연 4년 후 "전역 후 조용히 해뜰 날 기다렸다"

1군 콜업 후 몰아치기 타격으로 눈도장

한화 이글스 내야수 김태연(24)은 1군에 첫발을 내디뎠던 2017년 6월 21일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전을 앞두고 모든 것이 마냥 신기한 듯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상대 투수의 변화구를 받쳐놓고 칠 정도로 타격에 소질이 있다는 퓨처스(2군)팀 스태프의 평가를 받고 1군에 올라왔던 타였다.

홈런을 마친 그가 남긴 첫 마디가 생생히 기억난다. "그렇게 떨리진 않아요. 재미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뛰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이상근 당시 한화 감독대행(현 천안북일고 감독)은 김태연의 불을 쓰다듬으며 "벌써 스타가 됐다"며 흐뭇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게 8번 타자 3루수로 선발출전한 그는 첫 타석에서 신재영(현 SSG 랜더스)의 초구 슬라이더를 받아쳐 2점홈런을 터트렸다. 지금도 회자되는 '데뷔타석 초구 홈런'의 주인공이 된 순간이다.

그랬던 그가 다시 주목을 받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유근 탄약병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뒤 돌아와와 맹타를 휘두른 덕분이다. 데뷔타석 초구 홈런 이후 별다른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한 탓에 잊혀졌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야구가 떠난 적은 없다. 2018시즌 막판에는 손발력을 강화하기 위해 퓨처스에 머물던 2개월 동안 체중을 무려 12kg이나 감량했고, 2019시즌을 앞두고는 "지금의 경쟁구도는 팀에 플러스 요인"이라는 말로 마음을 다잡았다. 일회일비하지 않고 조용히 해뜰 날을 기다렸다.

전역 후 퓨처스리그에서 기회를 노리던 그는 기존 4번타자 3루수였던 노시환의 늑골 부상 이탈로 1군의 부름을 받았다. 시작부터 임팩트가 대단했다. 첫 경기에서 12타수 9안타(타율 0.750), 4타점을 몰아쳤다.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감독은 그에게 4번타자의 중책을 맡겼다. 타구의 질과 타석에서 대처하는 능력 등 무엇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었다.

문제는 이후였다. 19일 대전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21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까지 3경기에서 9타수 무안타(3볼넷)로 침묵했다. 어렵게 1군에 올라온 선수는 한번 좋았던 감을 잃어버리면 이를 되찾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22일 잠실 두산전에서 데뷔타석 이후 1523일만의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살아났다.

궁금했던 점은 따로 있었다. 방망이가 침묵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언제나 그랬듯, 김태연은 의연했다. 한층 더 성숙해진 느낌도 묻어났다. "첫 3경기에서 빗맞은 안타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이후 3경기에선 잘 맞은 타구가 잡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안타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플레이 타구를 최대한 많이 만들자는 생각으로 타석에 섰다." 그의 인플레이 타구 비율은 72.4%에 달한다.

"아직 4번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던 그가 상향 조정된 목표는 하나다. "처음에는 안타를 20개만 치자고 생각했는데, 이제 40개도 가능할 것 같다." 7경기 만에 애초 목표치의 60%(12안타)를 해낸 그의 표정에 여유가 묻어났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하루새 말소·등록 경험한 롯데 민병헌

KT전 앞두고 1군 엔트리 대거 교체 중 백신접종 특별 엔트리 포함돼 재등록

민병헌(34·롯데 자이언츠)은 1군 엔트리 말소와 등록을 하루에 겪었다. 신분은 특별 엔트리에서 일반 엔트리로 바뀌었다. 롯데 선수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활발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다.

롯데는 24일 사직 KT 위즈전에 앞서 1군 엔트리 대거 교체를 단행했다. 투수 김도규와 최영환, 내야수 이호연과 김주현, 외야수 김재유를 등록하며 투수 정성중, 포수 손성빈, 내야수 김민수와 이주찬, 외야수 민병헌을 말소했다. 이들

은 백신접종 관련 특별 엔트리 교체에 해당된다.

KBO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혹시 모를 후유증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 엔트리 제도를 운영중이다. 일반적인 경우 1군에서 말소된 선수는 재등록까지 10일이 필요하지만 특별 엔트리는 면제다. 22일 말소된 최영환과 23일 엔트리에서 빠진 김주현, 김도규, 김재유, 이호연은 이상이 없었고, 24일 1군에 재등록됐다.

23일 김재유가 말소된 자리를 채운 민병헌은 절차상으로 1군에서 한 번 말소가 돼야 했다. 하지만 래리 서튼 롯데 감독의 구상에 민병헌이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 엔트리로 다시 등록됐다. 24일



코로나19 백신접종 특별 엔트리 제도 실시로 롯데 민병헌은 24일 하루에만 엔트리 말소와 등록을 반복했다. 롯데는 선수들의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하루에 말소(특별 엔트리)와 등록(일반 엔트리)이 동시에 일어났다. 코로나19 상황이 낳은 진풍경이다. 활발한 엔트리 변경은 있었지만 경기에는 성사되지 않았다. 전날(23일)부터 내

린 비로 잔디 사정이 엉망이었다. 대형 망수포를 내야에 털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이 때문에 10월 1일 더블헤더로 재편성됐다.

사직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비가 반감지 않은 윌리엄스 감독 "재경기 수 까먹었다"

(KIA)

우천순연·코로나 여파로 취소 많아 "잔여경기 나중에 확실한 부감 될 것"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은 24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녹록치 않은 향후 일정에 대해 언급했다.

KIA는 23일까지 올해 잔여 경기 일정이 가장 많은 팀이다. 우천순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취소가 유독 많았다. KIA는 홈 7경기, 원정 8경기를 합쳐 15경기의 재경기가 남아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금도 당장

우천 취소가 일어나도 괜찮지만, 나중에는 확실히 부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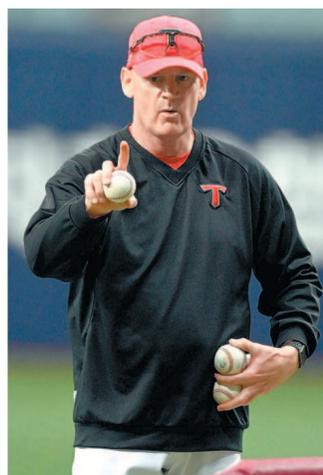
KIA는 20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됐던 키움과의 5연전 중에서 2경기가 우천취소됐다. 선수들에게는 당장 휴식을 줄 수 있어 달콤한 취소였지만, 어차피 나중에 소화해야 할 경기이기 때문에 윌리엄스 감독으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이번 주에는 선발 로테이션이 조정되면서(우천취소가) 오히려 도움이 됐다"며 솔직한 마음을 밝히기도 했다. 대체 선발로 내세울 예정이었던 윤준현에 대해서는 "현재는 주말로 로테이션을 연기해

둔 상태다. 25일까지 불펜에서 대기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6경기에 출전한 윤준현은 승패 없이 1홀드 평균자책점 3.70을 기록 중이다. 선발로는 두 번 등판했다. 6월 13일 롯데 자이언츠전(3.20이닝 2실점), 24일 KT 위즈전(3이닝 무실점)에 나서 준수한 투구를 했다.

"비 소식이 계속 있어 아직은 여러모로 확실치 않다. 주말까지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윌리엄스 감독은 "우리가 몇 경기를 다시 해야 하는지도 이제는 까먹었다. 너무 많아졌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실소했다.

광주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KIA 윌리엄스 감독